

무섭나고?

천만에!



김 윤

*김윤님은 민청학련사건 당시 서강대생으로 구속되어 마지막 재판까지 간 유일한 여학생이었다. 1975년 2월 석방 이후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현재까지 요양중에 있다.

담 밖에서 노래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때론 우렁차게, 때론 끊 일듯 약하게.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은〉, 〈선구자〉 그리고 〈우리 승리 하리라〉. 가슴 터질 듯한 흥분을 느끼며 석방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자도 아닌 다섯 명의 한방 식구들은 내가 곧잘 흥얼대던 찬송가 〈우리가 다시 만나 볼 동안〉을 불러 주었다. 모두들, 거의 여사 전체 식구들이 진심으로 기뻐했다. 이상하게도 긴 죄명을 가진 처녀, '73'자 변호 위에 노란 딱지를 하나 더 붙인 여학생이라는데 학생이 공부는 않고 무슨 짓을 해서 이런 데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명랑하고 건강해서 좋다고들 했었다.

취침나팔이 불고도 두 시간 가량 지난 밤 9시 30분 경에야 불려 나갔다. 처음 들어올 때는 빈손이었는데 어느새 커다란 보따리 두 개로 꿭꽁거려야 했다. 슬리핑백과 담요 두 장, 옷가지, 책들 … 밀린 하숙비를 내지 못해 하숙집에서 쫓겨나는 모습같다고 누가 말해 주었다.

짐 검사, 몸수색, 보안과에서의 복잡한 절차 등을 마치고 비상군법 회의 송모 검사를 만난 후, 마침내 희미하게 서 있는 철문을 향해 나는 어둠 속을 걷고 있었다. 예기치 못했던 석방 조치로 생각도 미처 정리 못한 채. 그대로 오래 그 밤을 걷고 싶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철문을 나서자 카메라 플래쉬와 함성 속에 정신이 잠깐 아득했다. 어머니 얼굴이, 그리고 같이 수감되었던 친우들 모습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정신이 들자 석방된 그들에 의해 높이 쳐들려 있는 나를 발견했다. 악수와 기자들의 질문과 떠미는 인파. 그처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문득 작년 이른 봄, 마포서 형사들에게 연행되던 날의 광경이 떠올랐다. 교정 잔디밭에 앉아 기타를 치며 미래를 꿈꾸던 학우들 — 그 광

경은 10여 개월 동안 내 머리 속에서 혼란한 유희를 해왔다. 그런데 오늘 이 환영하는 함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날과 오늘 사이를 연결 짓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는 얼른 이해되지 않았다.

74년 3월 28일 오후 1시, 서강대학교 식당에는 3백 명 가량의 학생들이 야릇한 공기 속에 웅성대고 있었다. 태극기와 플래카드가 게시판에 붙었다. 영문과 3학년 임성균군이 유신헌법 및 대통령긴급조치의 철폐를 위한 성토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을 때, 물을 끼얹은 듯 장내는 숙연해졌고, 곧 애국가가 시작되었다. 만류하시는 교수님들 얼굴 뒤에는 형사들도 열을 넘었다. 아니 스물인지 서른인지, 임군의 「서강대 학우들에게 보내는 글」, 그리고 내가 낭독한 선언문에 이어 학생들의 성토가 있었다. 극심한 빈부의 격차, 국제수지의 적자, 언론자유 등 기본적 자유의 부재현상 등에 대해서.

이미 평온하게 진행되기는 불가능했다. 태극기와 플래카드가 뜯기고, 또 한 장의 플래카드를 빼앗기지 않으려 두 학생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제지시키려는 형사들과 격투를 하려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 수라장 속에서도 박호용 군(무역과 3학년)은 결의문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유신헌법을 철폐하라”로부터 “노동자의 3대 단결권을 보장하라”까지 열 두 항목이었다고 기억된다.

그날 아침,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아파트를 나서며 초록 가방을 어깨에 멘 채 어머니께 손을 내밀었다. “엄마 악수!” 하는 장난기 섞인 내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을 느꼈다. 오전 10시 20분 전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 가을에 발병한 심장판막증으로 매년 결석일수 40일 정도를 기록하며 학교를 다닌 나를 위해 어머니는 내가 입학하는 학교 부근으로 이사를 하곤 하였다. 주위의 분들은 맹모삼천에 비기기도 하였다.

만나는 친구들과 일상적인 잡담을 나누며 교문을 들어서고, 본관으로 이어지는 언덕길을 숨차게 걸어 올라갔다. 교정의 이곳저곳을 들

려보며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을 생각했다. 서구사회사상사 강의를 들으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모두 기억해야겠다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신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다.

조사 도중 주타 찾아

오후 2시 경의 마포서 정보과실은 고기잡이배가 만선으로 돌아온 어장처럼 부산했다. 먼지 앓은 책상과 낡은 의자가 널린 그 방은 오랜 만에 활기를 띠는 모양이었다. 피할 생각을 않은 것은 아니나 불가능함을 판단하고 저항없이 연행되어 온 나와 세 학생은 이미 또 한 학생이 먼저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후에 알았지만 유인물 등사를 도운 이종수 군(경상대 2학년)이었다.

각자 형사 한 명씩과 마주 앉아 진술서를 쓰고 조서를 받았다. 미리 얘기들을 나눠 둔 탓인지 첫 조서는 순조롭게 작성되었다. 치안국에서 왔다는 사람이 물었다. “이런 것 하면 15년까지 징역 산다는 것 알고 했나?” “예.” “그럼 어째서 그런 희생을 각오했나?” “희생이 아닙니다. 수명이 15년 단축되더라도 그 동안 진실되게 살고 싶습니다.” “학생 아마 크리스찬인 모양이로군.”

조서가 완성되어 가는 오후 4시 경 방문이 열리며 박준엽 군(경영과 3학년)과 여학생 한 명이 들어왔다. 성토를 했던 허모 양의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도 무척 닳아 우리도 잠시 속을 정도의 E여대생이었다. 허양은 무사히 빠져나간 모양이어서 안심이었으나 웃이 찢기고 얼굴을 맞은 그 여학생에게는 미안하기 짹이 없었다.

학생처장님과 학생회장이 다녀가고 낮선 경찰서 분위기에도 조금 적응되어 긴장이 약간 풀린 가운데 두번째 취조를 받았다. 시켜주는 곱

탕을 거절하고 우유만 마시며 애매하게 함께 여행되어 온 최은희양(철학과 3학년)을 빨리 돌려 보내달라고 말했으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내일은 석방되려니 했으나 최양은 불기소로 석방될 때까지 4개월을 같이 고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나를 담당한 중년의 형사는 여학생에게라서 그런지 비교적 부드럽게 대해 주었으나 다른 구석에서는 고함소리가 자주 터졌다. 그럭저럭 밤 11시 경 끝내고 숙직자를 제외한 모두가 퇴근하여 우리는 난로가에 둘러앉아 떨리는 몸을 녹이며 서로 격려하는 농담을 몇 마디 나누면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권오성군(전자공학과 4학년)과 박세진군(경상대 2학년)의 목소리에 놀라 깨었다. 시위현장에도 있지 않았었는데 어찌 잡혔을까. 의아해 하는 도중 날이 새는데, 우리는 다시 불리워 취조를 받았고, 그때부터는 따귀도 서슴치 않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정보과실 옆방인 기동대실에 나흘을 머물면서 마지막으로 체포된 안상용군(화학과 2학년)을 포함한 우리 열명은 각자 불려가 취조받는 외에는 책도 읽고, 합창하다가 야단맞기도 하고, 학우들이 사온 과자를 남김없이 처치하고, 우리의 행동에 대한 토론도 하는 등 비교적 편히 지냈다.

때때로 밤 2시에 깨워 뚱딴지같은 질문을 해와서 머뭇거리다 뺨을 몇번 맞았지만 나는 그중에도 제일 편한 셈이었다. 남학생들이 봉동이 짐질을 몇 차례씩 당해 제대로 앓지 못하는 것을 보면 미안했다. 형사들은 “공산세력의 침투 가능성이 농후하니 철저히 캐내야겠다, 서강대에서 2차 시위가 계획 중인 것을 알고 있으니 관련 학생들 이름을 대라,” 혹은 “암전하던 서강대가 서울에서 최초로 말썽부린 것은 필시 타대학과 모의했을 것”이라는 등 여러가지 유도심문과 위협을 시도했으나 헛수고였다.

‘민청’ 구제서 처음 알아

4월 1일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유치장으로 옮겨졌다가 이름만 듣던 비상군법회의로 향한 것은 4일 아침이었다.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였을 때 가라앉았던 마음이 다시 동요되었다. 부모님께서 이 꼴을 보신다면 무엇이라 하실까. 미처 모르셨는지 우리 부모님이 안 오신 것이 무척 다행스러웠다. 검정 마이크로 버스에 올랐을 때 달려 온 다른 부모님들께서 던져 주신 신문에는 긴급조치 4호가 발포되어 있었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단체의 이름을 처음 보았다. ‘최고 사령’이라는 말은 ‘15년’보다도 실감을 주지 않았다.

바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차 안에서 <우리 승리하리라> 등 노래 몇 곡을 제지도 아랑곳 않고 힘껏 부르며 삼각지 육군본부로 갔다. 버드나무와 개나리에 연푸른 새싹이 돌아나고 있었다. 비록 묶인 몸이지만 대자연의 섭리가 역사 과정의 필연성도 약속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봄은 곧 오리라. 이 압제와 질곡을 떨쳐버리고, 빈곤과 허위의 속박도 떨쳐버리고, 자유를 노래할 봄은 머지 않으리라. 겨울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괴의자 중 황민수군(무역과 3학년)과 임상우군(사학과 2학년), 혀운홍양(사학과 3학년), 이들 셋이 미체포인 채 본교생 아홉 명은 하나씩 차례로 검사 취조를 받았다. 영양파이으로 보이는 이모 검사는 외제 테니스 공과 라켓을 짐무 책상 위에 널부터 놓고, 영어를 섞어가며 전화를 받고 하더니, 처음에는 은근히, 그러나 점점 거친 말투로 취조 아닌 훈계, 아닌 강연을 하고 있었다. 방청자가 검사서기와 나 둘뿐인 게 유감이었다. 그의 결론은 “너희에게 무슨 죄가 있겠니? 다 그 교수랍네 하는 자들이 무식해서 너희를 잘못 가르친 탓이지” 하며 자못 동정하는 태도였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려는 의욕이 있으면서도 끓는 자가 어디 있는가? 이름을 대 보시지?”하고 그가 질문할 때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나는 속으로 이렇게 외칠 뿐이었다. ‘하나님, 하루 속히 이 사람에게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뼈빠지게 일해도 끓을 수밖에 없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그는 민중의 고통을 이해하고 정신적 구원도 받을 것입니다’하고. 그러나 그도 우리만치나 가련한 존재인 것을, 그도 같은 피해자인 것을, 숲속의 작은 나무에 매어 달려 숲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에 불과하다는 것을.

희미한 불빛 아래서 푸른 수의로 깔아입고, 신분장 작성을 마치고, 몸수색도 끝난 다음, 밤 9시 경 여교도관을 따라 끝없이 뻗친 듯 음산하게 늘어선 감방들을 지나쳐 끝방까지 다달았다. 하필 13이라는 숫자가 불은 방이 배당되었노 하는 사치스러운 생각을 하며 들어서니 감방 특유의 쾌쾌한 냄새 속에 푸른 광목 솜이불 한 채만 덩그라니 놓인 모습에 이제부터로구나 하는 실감이 들기 시작했다.

쇠문고리가 덜커덕 잠기고 정적이 밀려왔다.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다는 신기한 생각이 들어 조금도 무섭거나 외롭지 않았다. 창가에 앉으니 인왕산 봉우리가 어둠 속에 솟아 있었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산 위의 전기불을 세다 잠이 들었다.

감방 철창 사이로 두 귀신이 스며 들어와 내 목을 양쪽에서 조르고 있었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죽이지만 나는 또 살아나서 너희를 죽이겠다고 하며 허우적거리다가 솜이불에 짓눌린 채 잠을 깼다. 새벽이었다. 창 앞 나무에 참새들이 벼이삭처럼 달려 지저귀고 있었다. 오랫만에 참새를 보았다.

밥은 보기보다 먹을 만했다. 밥을 나르는 아주머니가 비관하지 말고 열심히 먹으라고 하셨다. 모자라면 더 갖다 주겠노라고도 하셨다. 고마워 눈물이 글썽거림을 느끼고 얼른 닦았다. 다다미를 이곳저곳 들쳐

보니 작은 분홍색 성구 카드 한 묶음이 나왔다. 반가운 마음으로 펼치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눈에 띄었다. 몇 번이고 되풀이 해 읽었다.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가난한 심령이라는 말의 뜻을 처음으로 알 것 같았다.

8일 오후 1시 경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다시 가서 자필진술서를 썼다. 푸른 옷들이 어울린다고 서로 놀렸으나 더 건강하고 어른스럽게 보였고, 여학생들을 무척 걱정들 해주었지만 최양이나 나나 좋은 컨디션이었다. 군 앰뷸런스를 타고 오는 길에 유리창으로 보이는 바깥 풍경은 먼나라 이야기였다. 바삐 집으로 들어가는 인파 속에는 지겟군도, 엿장수도 보였다. 부러웠다.

1주일 후, 1사 7방으로 전방했다. 변소도 있고, 바깥마당도 내다보이고, 더구나 5방에 나보다 일찍 온 경북대 여학생 유진숙양과도 얘기 할 수 있어 한결 나았다. 물론 들키지 않게 조심조심한 얘기지만 서로가 이곳까지 오게된 경위며, 학교 얘기, 집안 얘기며, 친구들 얘기로 화제가 이어져 드디어는 유양의 애인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문에 붙어 서서 서로 살아있는가 안부터 물었다. 나는 개신교 교회에 나가고 유양은 가톨릭이었으므로 신앙에 대한 얘기도 많이 가져 우리는 오래 사귄 친구처럼 가까워졌다.

열흘쯤 후에 3방에도 긴급조치 위반자가 왔다 해서 내다보니 고등학교 동창인 서울문리대 학생이었다. 그곳에서 만나 반가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지만, 반가운 마음을 숨길 수는 없었다. 나와 유양은 이 신입생에게 짜기만 한 무우장아찌를 맛있게 다시 요리하는 법이며, 물을 아껴 쓰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상세히 가르쳐 주었다.

2사에는 한국신학대학의 박상희씨와 이화여대의 박혜숙양이 와 있어서 노란 딱지 식구는 모두 다섯이었지만 각각 독방에 있으므로 만날 기회가 좀처럼 없었다.

처음 열흘 가량은 집에서 모르셨는지 차입물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무척 곤란을 겪었다. 휴지 대신 벽지를 조금씩 뜯어서 썼고, 빨래비누는 이웃 방에서 반쪽을 얻었고, 유양이 화학조미료를 한 봉지 보내줘서 아껴 먹었다. 종일 노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레파토리를 준비해 둔 것은 다행이었다.

밖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궁금해서 혼자 추리도 해보았지만 소방차 사이렌 소리 외에는 외계로부터 오는 아무런 신호도 기다릴 수 없을 때 종종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 같았다.

5월 7일, 기관에서 나왔다는 사람이 다녀간 후 합방이 되어 네 사람이 더 늘었다. 1.3평 작은 방에 다섯이 지내기는 무척 불편했으나 곧 적응할 수 있었다. 먹고 살 걱정도 없는 학생이 들어왔다는데 대해 방 식구들은 처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으나 내 얘기를 대충 듣고는 무척 안타까워 하기도 하고 꾸중도 하셨다. 암전하게 생겼는데 아마 나쁜 친구들을 사귄 탓인가 보다고도 하였다.

다리를 포개 자야 하는 것, 여름밤 빈대가 죽어라고 내게만 달려드는 것, 목욕을 자주 못하는 것 등 몇 가지를 빼놓고는 책도 읽을 수 있고, 다양한 죄목을 가진 이들의 얘기를 통해 간접경험도 쌓고, 방 식구들께 책도 읽어 드리고, 그런대로 만족스런 생활을 할 수 있었다.

7월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 궁금하던 중, 어느 날 2사로 전방 갔던 경북대 유양이 우리 방문에 와서 “윤아, 나 출소한다” 했다.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철창 사이로 손을 잡고 “축하한다”고만 되풀이했다. 며칠 후 6명의 여학생중 서울대 여학생들과 이대 박양도 출감했다. 그 곳에서의 무자극의 생활이 무사고의 타성을 넣어 비인간화되어 가는 듯한 자신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는데, 다른 여학생들의 석방은 오랜 만에 오는 자극이었고, 큰 갈등 속에 빠진 나를 발견하였다. ‘혹시 나는?’ 하고 자문하는 벼룩이 생겼다.



1975년 2월 15일 출소하는 김윤

생활에도 지쳐버린 것 같았다. 그러나 이겨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 도 나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 끝없는 것같은 싸움을 계속하는 중 7월 22일 공소장을 받았다. 올 것이 왔다는 담담한 느낌이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견디어내지 못할 고통을 주지 않으신 당신 앞에서 제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 결과를 받겠습니다.”

비인간화의 질곡 속에서

8월 2일, 첫 재판이 시작되었다. 남학생들은 모두 흰 한복 차림이었으나 나 혼자 여사의 규칙대로 푸른 옷이었다. 뒷자리를 돌아보니 우리 어머니는 안 계셨다. 아마도 모르셨던 모양이라 생각했으나 4개월만에 뵈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쉬웠다. 이처럼 건강한 내 모습을 보시면 기운이 나실텐데, 그리고 졸업할 때 잘라 가발을 만들어 드

리기로 한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은 것을 보면 기뻐하실텐데.

“유신체제를 뒤엎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며 국민총화를 분열시켜” 검사의 공소장 낭독이나 전 재판과정이 어색한대로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진행되듯 전혀 진지한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다. 누가 누구를 재판하겠다는 것일까. 검사가 각 사람에게 반성했는가를 물었을 때 한 남학생이 “반성이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고 대답했다.

재판장은 첫 공판을 끝내며 피고인들이 중간 석방되지 않고 기소된 이유는 소위 ‘민청학련’과 손을 잡고 모의, 북한공산집단의 무력 적화혁명 계획에 앞장 선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긴급조치 4호로 고지하여 폴린 황민수군이 서울대생 두명과 만났던 것을 두고 만든 말이었으리라.

그 이튿날은 출정 대기를 위해 서울구치소 강당으로 교도관을 따라갔다가 그처럼 많은 노랑표지의 사람들을 처음 보았다. 여사에서 외롭게 지내오다가 그 숫자를 보고 흥분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군법회의에서 돌아오는 차에서 언니의 은사이신 김찬국 교수님을 뵈 것은 뜻밖이었고, 박형규 목사님과 김동길 교수님의 웃음 떤 모습에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몰랐다. 존경하는 분들과 같은 모습으로 묶여 있는 것이 송구스러울 지경이었다. 구형 10년에 징역 7년의 선고를 받아 왔다니까 방식구들이 깜짝들 놀랬다. 20년, 무기가 수두룩하다는데, 그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항소 재판은 9월 18일에 시작되었다. 사선 변호인의 심리신청은 기각되고 변론만이 가능했다. 특이했던 것은 우리들보다 뒤에 혼자 들어온 본교 교지 편집장 김택춘군(신방과 4년)을 변호한 이병린 변호사의 무죄 주장의 변론은 큰 격려와 힘이 되었다. 2년이 줄어 5년형을 받았다.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았다. 돌아올 때 모두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으나 후에 대법원으로부터 온 통지에는 내 이름만이 적혀 있었다. 변

호사에게서 남학생들의 집단 상고포기 소식을 들었고, 12월 7일 상고이 유서를 제출했다.

“10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본인이 절실히 느낀 것은 자유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러한 자유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유보되다 못해 곳곳에서 억압받고, 이제 양심의 자유마저 말살되려는 위기에 우리는 처했습니다. 이를 국민총화라는 미명으로 합리화하고 있지만 곁눈 테기로 조작된 총회는 내부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타국과 다른 여건 아래 특수한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행정부의 비대화, 입법부·사법부의 축소 등을 규정하는 유신헌법의 제정으로 달성될 수는 없으며, 도리어 우리의 목적에서 역행하는 원인을 내포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우울히 지내고 형이 확정되면 곧 있을지도 모르는 지방 교도소로의 이감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중, 1월 말 국민투표에 대한 대통령 담화를 듣고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어떠한 일들이 있었으며, 왜 대통령은 국민투표 실시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하는 모든 것이 궁금하였다. 신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도 “아마 누구를 또 뽑나 보지” 하는 식이었다.

2월 13일, 투표 결과를 들었을 때 조그마한 기대라도 가졌던 자신이 우스웠다. “뜻은 깊은 곳에 넣어 두었다가 제 행동에 책임질 수 있을 나이가 든 후에 곁으로 드러내라”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다. 5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바깥일에 대한 적극적 행동을 할 수 없는 처지라 하여 잠잘 수는 없는 것이다. 소외된 여성들에게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뜻을 키우자 하는 생각을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석방이라 했다.

바깥 세상은 놀랍게 변한 듯하다. 언론이, 교회가, 그리고 결국에는 민중이 한 목소리가 되고, 한 힘과, 한 사랑을 모을 때 억눌린 자는

진실된 자유을 얻을 것임을 믿는다. 피곤하지 않은 나 자신에 스스로 놀라면서 고통을 통해 더욱 강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현실이 요구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양심을 지키고 키워나가야겠다.

“보잘것없는 그릇도 당신의 뜻이 계시면 한 모퉁이에 쓰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님.”

